2021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열 - 오전반>

지원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 논술고사 시간은 90분이며, 답안의 자수 제한은 없습니다.

☐ 1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1면에 작성해야 하고, 2번 문항의 답은 답안지 2면에 작성해야 합니다. 1, 2번을 바꾸어 작성하는 경우 모두 '0점 처리'됩니다.

☐ 연습지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만 작성하며 연필, 샤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에 두 줄로 긋거나 수정테이프(수정액은 사용 불가)를 사용해서 수정합니다.

☐ 답안지에는 답 이외에 아무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 답안지 교체는 고사 시작 후 70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문항 1]

(1) 제시문 (가)의 두 가지 이론이 가지는 문제를 기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에서 근거를 찾아 논술하시오.

(2) 제시문 (라)의 제목에 나타난 '신문지'와 '밥상'의 동일성에 대해 제시문 (가)의 이론에 근거하여 '나'와 '어머니' 각각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

개인 동일성 문제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대답은 사람의 몸, 곧 신체가 동일성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동일성을 판단하는 것이 신체 이론이다. 그러나 신체 이론에는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용모나 체격이 달라졌다고 해서 10년 전의 그 사람과 10년 후의 그 사람이 동일한 개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뇌를 이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뇌를 맞바꾼다고 하자. 즉, 각자의 신체는 그대로 두고, 뇌만 바꾸는 것이다. 서로의 뇌를 바꾼 뒤, 남자와 여자의 지인들은 이들을 누구라고 여길까? 전후 사정을 안다면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남자의 신체를 가진 사람을 여자라고 여길 것이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는 외모만 남자일 뿐 여자의 기억을 갖고 있으며, 여자의 버릇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근거가 신체가 아니라 기억, 버릇, 느낌 따위의 심리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심리 이론이다. 그런데 심리 이론도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이 고등학생 시절 봉사 활동을 하다가 불현듯 어린 시절 집에서 음식을 만든 기억이 났다고 하자. 그리고 시간이 더욱 흘러 40대가 된 그는 고등학교 시절의 봉사 활동은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어린 시절에 음식을 만든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심리 이론에 따르면 이때,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40대의 그는 어린 시절의 그와는 다른 사람이 되고 만다.

제시문 (나)

부버(Buber, Martin)는 자신의 저서 『나와 너』에서 '너' 혹은 '그것'이 없이는 '나'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나'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 둘뿐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관계에서 유의할 것은 '너'와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과 관계를 맺는 '나'가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가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맺는 관계에 따라 바뀌는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그것', 즉 돈, 집, 국가 혹은 그 사람 등 삼인칭으로 표현되는 것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소유했을 때, 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자로서의 나일 뿐 전체로서의 나는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관계는 유일하지 않으며 유한하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나의 기능인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그때의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나에게 하나의 '너'가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의 '그것'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와의 관계에 있는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때의 '나'는 인격 전체이며,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물론 '나'와 관계를 맺는 '너'도 그 인격 전체로 '나'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차등의 관계이지만, '나'와 '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동격 관계이며, 두 유일무이한 존재들의 대등 관계이다. 그때의 '나'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시문 (다)

선박을 수리하는 조선소가 있다. 어느 날 '테세우스'라는 이름의 배를 소유한 선주가 배를 수리하러 왔다. 이 배는 나무로만 만들어졌다. 그날 조선소 사람들은 이 배의 낡은 널빤지 하나를 새 널빤지로 바꾸었다. 며칠 뒤 테세우스의 배 선주는 또 배의 널빤지 하나를 새 널빤지로 바꾸었다. 이후 테세우스의 배 선주는 잊을 만하면 조선소에 와서 배의 널빤지를 바꾸었다. 조선소에서는 테세우스의 배에서 교체한 널빤지를 버리지 않고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 몇 년이 지나 결국 테세우스의 배를 구성하던 원래의 널빤지는 하나도 남김없이 새 널빤지로 바뀌었다. 그리고 조선소에서는 그동안 모아 두었던 널빤지로 테세우스의 배와 똑같은 배를 조립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두 배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 테세우스의 배일까? 사실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배의 선주에게는 수리를 끝낸 배가, 골동품상에게는 헌 널빤지로 조립한 배가 진짜 테세우스의 배일 것이다.

제시문 (라)

신문지 밥상

더러 신문지 깔고 밥 먹을 때가 있는데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꼭 밥상 펴라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신문지가 무슨 밥상이냐며 궁시렁궁시렁하는데요
신문질 신문지로 깔면 신문지 깔고 밥 먹고요
신문질 밥상으로 펴면 밥상 차려 밥 먹는다고요
따뜻한 말은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요
따뜻한 마음은 세상까지 따뜻하게 한다고요
어머니 또 한 말씀 가르쳐 주시는데요
해방 후 소학교 2학년이 최종 학력이신
어머니, 우리 어머니 말씀 철학

[문항 1] '동일성'에 대한 이해

1. 출제 의도

-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을 비교하여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분석력과 텍스트 간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얻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텍스트 이해력 및 창의력을 평가한다.
-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또 다른 하나의 현상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다면적 사고 능력과 통합적 논리력을 평가한다.

2.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h>적용 교육과정</th><th>국어과 2015 개정 교육과정</th></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
1. 국어과 교육과정
<table>
<tr><th colspan="2">과목명: 국어</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td><td>[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td><td>제시문(가), 제시문(나)
제시문(다), 제시문(라)</td></tr>
<tr><th colspan="2">과목명: 화법과 작문</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td><td>[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td><td>제시문(가), 제시문(나)
제시문(다)</td></tr>
<tr><th colspan="2">과목명: 독서</th><th>관련</th></tr>
<tr><td>성취기준</td><td>[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td><td>제시문(가), 제시문(나)
제시문(다), 제시문(라)</td></tr>
</table>
</td></tr>
</table>

나)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고형진 외 5인	동아출판	2019	116~118쪽	제시문 (가)	X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6인	비상교육	2019	103~107쪽	제시문 (나)	X
고등학교 독서	고형진 외 5인	동아출판	2019	114~115쪽	제시문 (다)	X
고등학교 국어	류수열 외 10인	금성출판사	2018	184쪽	제시문 (라)	X

3. 문항해설

문항	해설
[문항 1]의 (1)	• [문항 1]의 (1)은 제시문 (가)에서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이 가지는 문제를 정리해서 기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나)에서는 '나'와 관계 맺는 '너'에서, 제시문 (다)에서는 선주 입장에서 수리를 끝낸 배가 테세우스임에서 근거를 찾아 해결 방안을 논술하는 문제임. • 제시문 (가)에서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는 과거의 나가 가지는 모습이나 기억과 현재의 나가 가지는 모습이나 기억이 다를 때임을 이해해야 함. • 제시문 (나)에서 '나'의 정체성은 인격 전체로서 만나는 '너'로 인한 것임에서 근거를 찾아야 함. • 제시문 (다)에서 선주에게 수리를 끝낸 배가 테세우스인 것은 이 배가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임에서 근거를 찾아야 함.
[문항 1]의 (2)	• [문항 1]의 (2)는 제시문 (라)의 제목에 나타난 '신문지'와 '밥상'의 동일성 여부를 제시문 (가)의 개인 동일성에 대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나'와 '어머니' 관점에서 논술하는 문제임. • 신문지를 물질적인 겉모습에 초점을 두어 그냥 신문지로 보는 '나'의 관점은 제시문 (가)의 신체 이론과 관련지을 수 있음을 추론해야 함. • 신문지에 밥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신문지를 밥상으로 인식하는 '어머니'의 관점은 제시문 (가)의 심리 이론과 관련지을 수 있음을 추론해야 함.

4. 채점기준

[문항 1]의 (1)	
준거1	**제시문 (가)의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의 문제는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와 모습이나 기억이 다른 경우에 동일성을 설명할 수 없음을 기술** • 신체 이론에서는 현재의 신체 모습과 과거의 신체 모습이 다를 경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 심리 이론에서는 현재에 과거의 기억을 하지 못할 경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 모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다른 (연속성이 없는) 경우에 개인의 동일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진다.
준거2	**제시문 (나)에서 인격 전체로 만나는 '너'를 통해, 현재와 다른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임을 증명할 수 있음을 기술** • '나'와 '너'는 인격 전체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가 신체적으로 다르거나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는 '너'는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준거3	**제시문 (다)에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연속성을 가지므로 선주에게는 수리를 끝낸 배가 테세우스임을 통해 '현재의 나'도 '과거의 나'와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음을 기술** •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배의 널빤지를 하나씩 바꾸어서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널빤지로 구성된 배가 선주에게 테세우스임은 널빤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테세우스라는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 사이의 일정한 시간 단위 간에 연속성이 존재하므로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문항 1]의 (2)	
준거1	**제시문 (라)에서 '나'가 신문지와 밥상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체 이론과 관련지을 수 있음을 설명할 것** • '나'는 '신문지'와 '밥상'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신문지를 겉모양에 초점을 두고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신체 이론과 관련지을 수 있다.
준거2	**제시문 (라)에서 '어머니'가 신문지와 밥상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이 심리 이론과 관련지을 수 있음을 설명할 것** • '어머니'는 '신문지'와 '밥상'을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가 신문지에 밥상이라는 기억, 버릇, 느낌 등 심리적 특성을 부여하여 동일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심리 이론과 관련지을 수 있다.

5. 대학 제시 답안

제시문 (가)에서 신체 이론은 현재의 신체 모습과 과거의 신체 모습이 다르면 '과거의 나' 와 '현재의 나' 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심리 이론은 '현재의 나' 가 과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면 '과거의 나' 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 모두는 '과거의 나' 와 '현재의 나' 가 다르면 개인의 동일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제시문 (가)의 신체 이론과 심리 이론의 문제는, 제시문 (나)에서 '나' 를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게 하는 '너' 와 제시문 (다)에서 '연속성' 이라는 개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시문 (나)에서 '나' 와 인격 전체로 만나는 '너' 는 '현재의 나' 가 '과거의 나' 와 신체적으로 다르다거나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고, 시간과 공간에 의한 다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나' 와 '과거의 나' 가 동일인임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 테세우스라는 배가 조금씩 널빤지를 바꾸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널빤지로 구성된 배가 되었지만 선주에게는 이 배가 진짜 테세우스임은 널빤지를 바꾸는 하나하나의 과정에서 그 배가 테세우스라는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와 과거 사이에 동일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나의 연속성을 통해 '현재의 나' 와 '과거의 나' 가 동일인임을 설명할 수 있다.

※ 글자 수: 700자(공백 포함)

(2) 제시문 (라)의 제목인 '신문지 밥상' 은 신문지를 펴고 그 위에 밥을 차려 놓고 먹을 때, 이 신문지가 밥상이라고 생각하고 붙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신문지 밥상에 대해 나는 "신문지가 무슨 밥상이냐" 며 신문지와 밥상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있다. 나는 신문지의 정체성을 신문지의 겉모습에 두고 신문지 밥상도 신문지의 겉모습을 하고 있으므로 신문지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나의 관점은 제시문 (가)의 신체 이론과 관련을 지을 수 있다. 신체 이론은 신체, 곧 사물의 겉모습에 동일성 판단의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한편, 제시문 (라)에서 '어머니' 는 신문지에 밥상의 기억과 느낌 등 심리적 특성을 부여하여 "신문질 신문지로 깔면 신문지 깔고 밥 먹고, 신문질 밥상으로 펴면 밥상 차려 밥 먹는다" 라고 하며 신문지와 밥상의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관점은 제시문 (가)의 심리 이론과 관련을 지을 수 있다. 심리 이론은 개인의 동일성을 보장해 주는 근거가 기억, 버릇, 느낌 따위의 심리적인 특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글자 수: 520자(공백 포함)

[문항 2]

(1) 제시문 (가)의 기능론과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호주제 폐지의 의미를 논술하시오.

(2) 제시문 (라)에서 촌장의 행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제시문 (가)의 기능론과 갈등론의 입장에서 추론하여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과 사회 환경 속에서 인간은 이전과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간다. 대다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던 때가 불과 수십 년 전인데, 지금은 대다수 사람이 도시에 모여 살고 직업도 다양하다. 사회적 관계의 범위와 형태도 다양해졌으며, 새로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확산하면서 기존 사회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의 생활 방식, 의식 구조, 사회적 관계, 사회 구조 등이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사회 변동이라고 한다. 사회 변동은 사회마다 그 속도나 방향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사회 변동을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이론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 기능론은 사회가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각 부분은 균형을 이루면서 통합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전제한다. 사회의 어떤 부분이 균형에서 벗어나 다른 부분과 마찰이나 갈등이 발생할 때, 사회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 변동하여 안정성을 되찾는데, 이 과정을 바로 사회 변동이라고 본다. 즉, 기능론은 사회 변동을 사회적 균형과 통합을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본다. 기능론은 사회의 질서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사회 변동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혁명과 같이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갈등론은 소수의 지배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배 구조나 사회 규범 등을 다수의 피지배 집단에 강제하고, 사회는 이러한 강제와 억압으로 유지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는 기존 질서 유지를 원하는 지배 집단과 새로운 질서를 원하는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 요인이 내재하여 있으며, 이것이 표출되면 사회가 변동한다고 본다. 즉 갈등론은 사회 변동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갈등론은 사회 질서 이면에 숨겨진 모순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사회 통합이나 사회 구성 요소 간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시문 (나)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차별이 존재해왔다. 성차별은 인간의 기본권리인 자유권과 평등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참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권리 등에서 성차별을 받는 개인은 자아실현의 기회를 잃게 되고, 이러한 불평등한 현실은 공동체의 발전과 통합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성주의 윤리학자들은 성차별이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이성에 기초한 정치적 남녀평등과 여성의 자유권 보장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여성주의 윤리는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여성주의 윤리는 배려의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며 정의 윤리를 보완한 배려 윤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려 윤리의 태도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이 실현된다면 남녀가 상호 보완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될 것이다.

*배려 윤리: 여성주의 윤리의 영향을 받은 배려 윤리는 인간을 상호 의존 관계로 본다.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윤리적 판단을 하고, 인간 본성으로서 배려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제시문 (다)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호주제는 가족 관계를 호주(戶主)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家)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에 가족 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게 하는 남계 혈통을 통해 대대로 잇게 하는 제도이다. 2005년 2월 국회는 호주제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달 3월 헌법 재판소는 호주제가 헌법에 위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 달 뒤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이 개정안이 담긴 새로운 민법이 시행되었다.

제시문 (라)

파수꾼 가: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파수꾼 다'는 여느 때와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파수꾼 나'를 바라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파수꾼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물러갔다.
파수꾼 다: 정말 이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파수꾼 나: 보렴, 방금도 이리 떼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파수꾼 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중략)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파수꾼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편지), 네가 보낸 거니?
파수꾼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에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파수꾼 다: 도끼를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파수꾼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은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파수꾼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파수꾼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파수꾼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이강백 희곡 <파수꾼>

[문항 2] 사회변동의 이해: 기능론과 갈등론

1. 출제 의도

-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 기능론과 갈등론을 활용하여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 colspan="3">“사회과 2015 개정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 colspan="3">1. 사회과 교육과정
<table>
<tr><td colspan="2">과목명: 사회문화</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 1</td><td>[12사문04-01] 기능론과 갈등론을 활용하여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고 각 이론의 특징을 비교한다.</td><td>제시문(가), 제시문(다)
제시문(라)</td></tr>
<tr><td colspan="2">과목명: 생명과 윤리</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 1</td><td>[12생윤02-03] 사랑과 성의 의미를 양성 평등 관점에서 분석한다.</td><td>제시문(나)</td></tr>
</table></td></tr>
</table>

나) 자료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자료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구정화 외 4인	천재교육	2017	169쪽	제시문 (가)	X
사회문화	신형민 외 4인	비상교육	2018	168쪽	제시문 (가)	X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9인	비상교육	2018	69쪽	제시문 (나)	X
사회문화	손영찬 외 4인	미래엔	2017	175쪽	제시문 (다)	X
문학	한철우 외 7인	비상교육	2018	92~93쪽	제시문 (라)	X

3. 문항해설

문항	해설
[문항 2]의 (1)	• 기능론과 양성평등의 관점을 활용해서 제시문(다)에서 제시되는 호주제 폐지를 기술하는 문제임(제시문(가), (다), (다))
[문항 2]의 (2)	• 사회 변동을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토대로 사회 변동보다는 지배를 위한 현상유지(질서)를 주장하는 촌장의 행동이 야기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문제임(제시문(가)와 (라))

4. 채점기준

[문항 2]의 (1)	
준거1	**제시문 (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제시문 (가) 기능론 관점의 활용**
	- 기능론은 사회의 각 부분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통합되어 있어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전제 - 사회의 각 부분들이 다른 부분과 갈등하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 변동하면서 안정을 되찾음 - 호주제는 여성주의 입장과 남성 중심 문화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사회적 균형과 통합을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현상 - 호주제 폐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점진적인 사회변동임
준거2	**제시문 (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제시문 (나)의 양성 평등 관점의 활용**
	- 호주제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 문화가 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성차별에 기초한 불평등한 법 제도. - 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적 남성 중심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호주제 폐지는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이와 같은 법 제도 개선임

[문항 2]의 (2)	
준거1	**제시문 (라)의 촌장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 기능론의 관점**
	- 기능론의 전제는 사회의 각 부분이 균형을 이루면서 통합되어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임. - 촌장은 사회 균형(질서)만 생각. - 촌장은 새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침으로써 비정상적 상황은 심화될 것임
준거2	**제시문 (라)의 촌장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 갈등론의 관점**
	- 갈등론의 전제는 지배 집단과 새로운 질서를 원하는 피지배 집단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음 - 마을 사람들이 망루를 부수려고 찾아오지만, 촌장은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합리화에만 빠짐 -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5. 대학 제시 답안

(1) 우리나라에서 2005년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호주제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남계 혈통을 대대로 잇게 하는 제도이다. 호주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남성 중심 문화가 법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성차별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불평등한 법 제도는 공동체의 발전과 통합을 가로 막으며,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제시문 (가)의 기능론은 사회의 각 부분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통합되어 있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사회의 어떤 부분들 사이 갈등이 발생할 때, 새로운 균형을 찾아 변동하며 사회는 균형을 되찾는다. 기능론의 관점에서 보면, 호주제는 여성주의 입장과 남성 중심 문화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며, 사회적 균형과 통합을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점진적인 사회변동으로 새로운 균형과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 글자 수: 482자(공백 포함)

(2) 제시문 (라)에서 촌장은 질서만이 마을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주장한다. 촌장이 말하는 질서는 변화하지 않은 현상유지거나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화 혹은 지배전략일 뿐이다. 촌장의 문제는 사회 변동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능론의 전제는 사회의 각 부분이 균형을 이루다가 갈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균형을 찾아 변동하여 안정성을 되찾는 것이다. 그러나 촌장은 사회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현상유지(질서)만을 강조하거나 거짓말을 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거부했다. 촌장의 행동으로 사회(마을)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사회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갈등론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는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사이 갈등할 수 밖에 없고 경쟁과 투쟁 속에서 변동한다. 마을 사람들이 도끼를 들고 망루를 부시기 위해 다가온다는 것은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촌장은 사회의 모순을 감추고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 거짓 합리화만을 주장한다. 이 경우, 촌장의 행동으로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글자 수: 570자(공백 포함)